"올스타전 앞두고 류현진 등판 일정 조정할 수도"

로테이션상 내달 8일 등판시 규정상 올스타전 불발…로버츠 감독 고민

메이저리그(MLB) 데뷔 이후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류현진(32·LA 다저스)이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발될 가능성은 무척 높다.

현지 언론들은 이미 류현진의 올스타 선발을 당연시하며 그의 올스타전 선발 등판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류현진이 올스타전 마운드에 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류현진은 7월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이는 다저스가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치르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다. 올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7월10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펼쳐진다.

류현진이 현재 선발 로테이션대로 등판하면 올스타전에 등판할 수 없다. 메이저리그는 선수 보호를 위해 올스타전 직전 경기에 등판한 투수는 올스타전에 등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켄 거닉 기자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렁킷 기자에 따르면 올해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NL) 올스타 사령탑을 맡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6일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로버츠 감독은 "현재 로테이션상으로는 류현진이 7월8일 샌디에이고전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등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하지만 클리블랜드에서 류현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류현진이 올스타에 선발된 후 7월8일 샌디에이고전에 선발 등판하면 올스타전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고, 식전 행사 등에만 참가한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은 아직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발된 적이 없다.

올해에는 생애 첫 메이저리그 올스타를 바라볼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13경기에 선발 등판해 9승 1패 평균자책점 1.36을 기록, 15일 현재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 다승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 등판 일정이다. 류현진의 올스타 선발 여부가 결정되면 로버츠 감독은 본격적으로 등판 일정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체전에도 없는 양궁 컴파운드, 세계대회 금2·동1 기염

남자양궁, 세계선수권 첫 金…김종호, 혼성전까지 2관왕

김종호(왼쪽·현대제철), 소채원(현대모비스)이 16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에서 열린 2019 스헤르토헨보스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혼성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159-153으로 꺾었다. 김종호는 단체전 금메달까지 2관왕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양궁이 세계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단체전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종호(현대제철)는 혼성전까지 2관왕을 달성했다.

김종호, 최용희(현대제철), 양재원(울산남구청)으로 구성된 남자팀은 16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에서 열린 2019 스헤르토헨보스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터키를 235-23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계식 활을 쏘는 컴파운드 종목에서 한국이 단체전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전과 혼성전 우승은 있었다.

김종호는 소채원(현대모비스)과 함께 출전한 혼성전 결승에서도 프랑스를 159-153으로 꺾어 2관왕을 차지했다. 혼성전 대회 3연패다.

김종호는 또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컴파운드 종목의 모든 메달에 관여했다.

컴파운드는 리커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인프라가 열악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닌 탓에 관심도가 높지 않다. 심지어 전국체전 정식종목도 아니다.

한국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부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 추가되면서 컴파운드에 주목하고 있다.

빠른 성장세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주 무대였던 컴파운드에서 한국이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올림픽 종목인 리커브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국내 저변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양궁계에 세운 기록들은 엄청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추신수, 신시내티전 1안타 1타점

텍사스 2연승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와 타점, 득점을 1개씩 기록하며 팀의 2연승에 힘을 더했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추신수는 연속 경기 출루 행진도 '5'로 늘렸다. 하지만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2에서 0.280(246타수 69안타)로 조금 낮아졌고, 출루율도 0.387에서 0.383으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1회초 상대 1루수 조이 보토의 송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대니 산타나의 중전 안타로 3루까지 나아간 추신수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3루 땅볼 때 홈으로 파고들었다. 시즌 48번째 득점.

2회초 2사 2루에서 1루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팀이 3-0으로 달아난 4회초 2사 2루에서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적시타를 작렬, 시즌 29번째 타점을 수확했다. 추신수는 산타나의 안타로 3루까지 진루했지만, 더 이상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7회초 유격수 땅볼에 그친 추신수는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텍사스는 4-3으로 승리했다.

4-0으로 앞서가던 텍사스는 4회 말 야시엘 푸이그에 투런포를, 7회 말 커트 카살리에 솔로 홈런을 허용해 4-3으로 쫓겼다. 하지만 크리스 마틴(⅔이닝), 호세 레클레르크(1이닝), 숀 켈리(1이닝)로 이어진 계투진이 무실점 투구를 선보여 1점차 승리를 거뒀다.

2연승을 달린 텍사스는 38승째(32패)를 수확했다.

뉴시스

"NBA 앤서니 데이비스, LA레이커스行" 전망

미국프로농구(NBA)의 정상급 빅맨인 앤서니 데이비스(26·208㎝)가 LA 레이커스로 이적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의 애드리언 워즈내로우스키는 16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팀의 간판인 데이비스를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NBA 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데이비스가 LA 레이커스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6대 1 트레이드다.

워즈내로우스키에 따르면 LA레이커스는 데이비스를 받는 대신 론조 볼, 브랜던 잉그램, 조시 하트 등 선수 3명과 지명권 3장을 건넨다. 21일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지명권도 포함됐다.

데이비스는 2012년 전체 1순위로 뉴올리언스에서 데뷔한 이후 팀의 핵심선수로 뛰었다. 6차례 올스타에 선발됐으며 2017년에는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2015, 2017, 2018년 시즌 베스트5이기도 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우승 등 경력도 화려하다.

미래유소년지도자 전국교육대 티볼대회 광주교대 우승

서울교대 A팀에 14-8 승리

KBO(총재 정운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9 미래 유소년지도자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에서 광주교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6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공원 야구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광주교대는 결승에서 서울교대 A팀을 14대 8로 꺾고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청주교대와 경인교대 B팀은 나란히 공동 3위를 기록했다.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국 교육대학교에서 총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우승팀인 광주교대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 준우승팀인 서울교대 A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70만원, 공동 3위팀인 청주교대와 경인교대 B팀에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